

순창군 행복콜 버스가 달립니다

쌍치·복흥면 대상 운영 시작... 주민 교통 편의성 확대

순창군 행복콜 버스가 쌍치·복흥면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 주민 교통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군은 16일부터 쌍치면 복흥면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전화로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응답형 행복콜 버스가 정식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창군 행복콜 버스가 쌍치·복흥면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 주민 교통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행복콜 버스는 기존 농어촌버스가 반차로 운행하는 비율을 줄이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운행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버스 운행시스템이다.

운행구간은 각 마을에서 먼 소재지를 운행하며 최소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콜센터로 통해 예약하면 행복콜 버스가 마을까지 달려간다. 운행 요금은 농어촌 단일 요금을 적용해 1,000원 미만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동절기 시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대형버스가 아닌 15인승 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길이 좁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 진입할 수 있어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나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또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먼 소재

지로 나갈 수 있어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중단중인 먼 소재지 작은목욕탕 등이 운영을 재개하면 행복콜 버스의 역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행복콜버스 운행과 발 맞춰 쌍치·복흥면에서 순창으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직통노선도 1월 중 신설해 쌍치·복흥면과 순창읍의 물리적 도

달 거리도 대폭 줄여 쌍치·복흥면 주민들이 순창읍에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편리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 사업은 필요할 때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먼 소재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시범적 운영을 통해 타 면에도 확대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1공구 준공

이후 2공구 공사·준공인가 추진

남원시는 2015년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2017년부터 조성사업을 착공한 사매면의 일반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1공구 준공은 전체 준공인가 전 입주예정 기업의 원활한 투자지원을 위해 공구분할을 시행해 이뤄진 것으로, 시는 이후 2공구 공사 및 준공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산37-3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인근에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천완주고

속도로 등이 위치해, 광주공항, 광양항 등이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 기업 활동에 있어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주목 받고 있다.

유치 업종으로는 식료품, 음료,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 부품, 전기장비제조,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 등으로 분양대상 용지는 55만6,000㎡(44블록)로 ▲분양 면적 45만9,000㎡(39블록) ▲임대 면적 9만7,000㎡(5블록)이며 ▲분양가는 3.3㎡ 당 32만 5,000원선이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2개 기업이 분양 계약 체결 후 착공에 들어갔으며 1개 기업이 투자협약 후 착공을 준비 중이며, 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가동되면 1조원의 매출과 3,500여 명의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효과를 비롯해, 단지 내 기업체 가동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연간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미래를 이끌 산업 육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남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다"며 "앞으로 시에서는 남원시민의 장점을 살려 분양가 지원, 물류비지원 등 다양한 보조금 혜택 지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수상

임실군이 2020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은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군은 2020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실적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자체 예산을 확보해 임

실군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해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건의료원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예방접종 홍보, 철저한 예방접종 기록관리, 미접종자 추적관리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임실=진충영 기자

임실군, 농촌축제 2개 마을 선정

농식품부 2021년 지원사업에 오수면 둔대기·지사면 관기 마을

임실군 오수면 둔대기 마을(위원장 이운재)과 지사면 관기마을(위원장 전홍복) 2개 마을이 '2021년 농촌축제'로 선정됐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전국 지자체 134개 마을이 응모, 69개가 선정된 가운데 이들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마을주민의 화합과 농촌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축제 준비부터 행사까지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축제사업으로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수면 둔대기마을은 1,800만원, 지사 관기마을은 1,000만원 등 총 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오수면 둔대기마을은 '백중술래이축제'를 주제로 5년 연속 농림부 농촌축제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2019년도에는 최우수 농촌축제로 지정되었고,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을 창작시 전시회와 술래이 꾸러미 제작 등 성공적으로 비대면 축제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인 호평을 받았다.

특히 최초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참고에 묵혀져 있던 마을깃발(용기龍旗, 제작 1933년도 추정)을 새롭게 찾아내어 축제의 주요 테마로 활용, 마을공동체 문화유산의 가치를 축제를 통해 높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

취시켰다는 평이다. 지사면 관기 관터 그려그려 축제는 2015년부터 대흥 감나무를 주제로 잊혀져가는 관기 농악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를 시작했다.

지난 2019년 농림부 농촌축제로 지정되어 성황리에 축제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농악동아리 운영과 마을경관 개선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농촌축제 마을에 1억7,000여만원을 지원, 지속적으로 신규 희망대상 마을 발굴에 힘써 왔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체 활동 등 마을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마을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제를 희망하는 마을은 예비 컨설팅에 참석토록 적극 홍보하여 주민 주도 축제 운영의 내실화 및 사업목적에 맞는 효율적 사업비 집행에 힘쓰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코로나19의 전염 확산 속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안전한 농촌축제를 개최해 좋은 성과를 거둔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위기속에 개최한 올해 축제 경험을 바탕으로 흥이 있는 마을축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순창군 경영실습임대농장, 열혈청년농부 모집

순창군이 이달 30일까지 온실농장을 경영할 꿈과 도전정신을 갖춘 열혈청년농부를 찾는다. 군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창업에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조성하고 있다. 순창 금과면 매우리 일대에 조성하는 경영실습임대농장은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 3,000평 규모로 스마트 온실 6동, 일반온실 2동, 딸기육묘장 1동 등 총 9동이다.

순창군이 이달 30일까지 온실농장을 경영할 꿈과 도전정신을 갖춘 열혈청년농부를 찾는다. 군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창업에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각 시설의 유형을 달리해 장애인 케어팜, 한농대 졸업생 연계, 유기농 토경 스마트팜 등으로 구성해 타 시군과 차별화했다. 2023년 준공 예정인 '순창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 과도 발 맞춰 모두 친환경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방문해 임대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농업과 기술보급계(063-650-563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이하 사람이 해당된다. 임대비용은 시설별로 연간 최소 15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군은 임차인에게 영농교육과 컨설팅을 우선지원하며, 임차기한은 3년이다. 시설을 임차한 청년농업인은 본인 책임하에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

지역 소식통

남원시,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남시장 공영주차장은 고객 이용시 주차권을 직접 뽑느라 대기시간이 길어져 2차선 도로를 막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여 고객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었다.

따라서 이번 공모 선정으로 주차장 입구에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 고객들의 주차장 진입 편의성 향상, 신용카드·현금·페이 등으로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차관리 서버가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정보를 관리해 주차장 이용통계가 명확하게 나와 매출관리도 투명성 보장과 인건비 부담도 줄여 주차장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김재연 일자리경제 과장은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편의성이 향상되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저탄소생활 실천 우수지자체 5년 연속 선정

남원시는 전북도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성과 공유하며 시·군의 역할 인식제고 하고자 개최한 2020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시·군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메 뉴얼을 준수하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민대상 에너지 진단 컨설팅 및 친환경 생활 실천 홍보·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남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및 5개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에 함께 해준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